

2021  
국립무형유산원  
개막공연

# 전화 위복

## 轉禍 爲福

2021.4.17.(토) 오후 4시  
얼쭈마루 대공연장



2021 국립무형유산원

개막공연

전화위복



## 국립무형유산원은

국립무형유산원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설립된 복합행정기관입니다.

무형유산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공연장

주제별 무형유산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상설·기획 전시실

무형유산 디지털 체험관 꿈나래터

기·예능 보유자들의 삶과 예술 가치를 알 수 있는 무형문화재기념관

무형유산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교육공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무형유산 문화복합공간 라키비움 책마루 등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시설들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즐기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소통형의 열린 공간을 꿈꾸고 있습니다.



# 전화 위복

## 轉禍 爲福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코로나 19로 시작된 2020년이 어느덧 1년이 지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202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재앙과 근심, 걱정이었던 코로나19를 극복해나가면서  
다방면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이끌며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예술 또한 코로나 19를 딛고 이겨내어 전통문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문화 선진국으로 자리잡기를 바라며  
국립무형유산원 개막공연을 <전화위복>이라는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음악과 소리 춤과 탈짓을 통해  
재앙, 근심, 역병, 걱정을 물리치고  
복이 되고 희망이 되는 2021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공연 보시는 모든 분들  
재앙과 근심이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출 정종임



구성 남인우

### 연출의 글

### 공연 프로그램

- |                                     |                                   |
|-------------------------------------|-----------------------------------|
| 1.<br>대취타                           | 2.<br>태평무                         |
| 3.<br>판소리<적벽가 중 활쏘는 대목>             | 4.<br>황해도평산소놀이굿                   |
| 5.<br>미디어 샤먼                        | 6.<br>지신RV, 경북스윙                  |
| 7.<br>배김새의 아름다운 춤사위와<br>낙죽장도 공예의 만남 | 8.<br>신명과 배김새의 맥을 잇는<br>한라에서 백두까지 |



진행 방수미

- 국립민속국악원 지도단원
- KBS 국악대상 수상자(2018년)
- 박동진판소리 명창명고대회  
대통령상 수상(2016년)

# 대취타

## 국가무형문화재 피리정악 및 대취타



‘대취타’는 불고 때린다는 의미로, 왕의 행차나 군대의 행진 등에서 취고수에 의해 연주되는 곡이다.  
 현장의 관객과 온라인으로 관람하는 시청자를 모시는 의미에서,  
 그리고 나쁜 액운을 취악기(부는 악기)와 타악기(치는 악기)의 소리로 쫓아내고  
 부정한 것을 정화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팬층을 가지고 있는 BTS 슈가의 D-2(믹스테이프)의  
 타이틀곡 ‘대취타’는 오늘 연주되는 곡을 샘플링하여 탄생하였다.  
 전통문화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창작된 음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은  
 문화선진국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출연진 피리정악 및 대취타보존회

등채 김병오

용고 김영헌, 김형섭

태평소 김철, 김성준, 이종무

나발 이영, 이상원, 김창곤

나각 이거희, 노봉래, 최성호

자바라 이결, 이종범

장구 박거현

징 이웅

# 태평무

## 국가무형문화재 태평무



태평무는 나라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기원하기 위하여 추는 춤으로, 역병으로 가득한 세상이 지나 태평성대한 날이 오길 희망하며 섬세하고 우아하며 발 디딤 하나하나에 절도가 있는 태평무를 선보이고자 한다. 36박에 맞추어 발의 앞·뒤꿈치를 현란하게 움직이는 발디딤은 태평무의 특성을 드러낸 백미이다. 반면, 상체 춤동작은 우아하고 단아하면서 무게감 있게 춤을 추는데, 시원하게 뻗는 한삼 자락과 더불어 돌리는 사위, 뿌리는 사위 등 절제된 격식의 품격을 구현해 내기도 한다. 국민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태평한 세상이 오길 염원하며 춤으로써 액을 쫓고자 한다.

## 출연진



**이소정**

국가무형문화재 태평무  
이수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무용과 교수



**아쟁 김성근**

서울시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이수자  
제5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전통부문  
최우수상



**대금 홍석영**

국가무형문화재 대금산조  
이수자  
목포전국국악경연대회  
문화체육부장관상



**가야금 이가빈**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피리 오노을**

서울시무형문화재 삼현육각  
이수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피리교사



**장구 전준영**

정동극장 예술단원  
2020 작품 '땀' 연출



**징 정상화**

서울시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이수자  
박동진소리명창명고대회  
일반부 대상



**팽과리 이민형**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전수자  
전통음악집단 셋 대표



**상궁 김수현**

제5회 FIDAF 국제춤연맹  
콩쿠르 한국무용 시니어 금상  
제12회 우봉 이매방  
전국 무용 경연대회 차석

# 판소리

적벽가 중  
활쏘는 대목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판소리는 소리꾼이 고수의 북 장단에 맞추어 창, 아니리, 발림 등으로 음악적 이야기를 엮어가며 여행하는 예술로, 한 사람이 여러 인물을 묘사하고, 이야기의 극적 구성을 전달해야하므로 여러 음악적 표현방법이 발달했다. 적벽가는 《삼국지연의 三國志演義》의 적벽대전을 이야기삼아 만든 판소리로 ‘조자룡 활쏘는 대목’은 적벽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긴박함 속 유유자적 소리의 밀고 당김이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목을 통해 판소리의 참맛을 전달하고, 활시위를 당겨 적을 겁박했듯 코로나19를 정조준 해서 우리의 소리와 장단으로 액을 물리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

## 출연진



**김일구**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



**고수 이상호**

전라북도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이수자  
제12회 팔마전국고수대회 대명고수부 장원(대통령상)

# 황해도 평산소놀이음굿



황해도 평산 지방에서 전승되었던 마을 단위 굿 형식의 연희로  
경사굿 가운데 제석거리에 이어 행하여지며, 농사나 사업, 장사의 번영을 빌거나  
자손의 번창을 비는 놀음 굿이다.  
소를 부리는 요령이나 쟁기와 보습을 맞추는 법을 가르치는 대목이 있어  
농경의례의 성격도 띤다. 천상의 신들이 땅에 내려와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는 이야기로  
연극적인 장면이 많고 재미가 있다.  
2021년 신축년 소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민족에게 친숙한 동물 ‘소’로  
전화위복하는 이야기를 풀어, 코로나 펜데믹으로 지친이들에게  
신명과 복을 나누는 무대가 될 것이다.

## 출연진



박정욱

국가무형문화재 황해도평산소놀이음굿  
이수자

김영빈 국가무형문화재 서도소리 이수자

김종옥 국가무형문화재 서도소리 이수자

김창식 국가무형문화재 서도소리 이수자

박희순 서도소리전통예술원 연구회원

권서연 서도소리전통예술원 연구회원

최금섭 서도소리전통예술원 연구회원

진숙경 서도소리전통예술원 연구회원

임경숙 서도소리전통예술원 연구회원

박노환 서도소리전통예술원 연구회원

피리, 태평소 김형석

장구 김진석

징 김태경

소 김광호, 김정호

# 미디어 샤먼

샤머니즘,  
민화 그리고 판타스틱(영상)

복을 빌고 재앙을 물리친다.



영상과 음악으로 굿을 재해석하여 ‘안녕’을 기원하고, 해학과 즐거움을 전달하는 공연이다. 한국 전통의 소재로 시각적 작업에 정평이 나있는 미디어 아티스트 라지웅과 무가(굿음악)와 랙크/힙합 사운드를 접목시킨 밴드 ‘추다해차지스’의 보컬로 활동중인 소리꾼 추다혜, 한국전통음악과 빈티지 사운드에 초점을 맞추어 감각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미국인 디제이 아킴보와 결성한 새로운 형태의 공연예술프로젝트이다. 새로운 형식의 미디어를 통한 예술로, 굿·무당의 새로운 의미를 불러내는 감각적·시청각적인 작업으로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빈다. 새로운 형태의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놀라움과 전통의 다양한 변주와 가능성을 느끼게 해줄 무대를 선보인다.

## 출연진



영상 라지웅(VJ Ra)



소리 추다혜



DJ 아킴보(AKIMB)

# 상자루

<지신RV>, <경북스윙>



## 출연진



조성운



남성훈



권효창

상자루는 재즈와 팝을 국악과 융합시키는 3인조 밴드로, 영문명은 ‘코리안 집시(Korean Gypsy)’다. 유랑하며 자유로운 음악을 연주하고 그로써 삶을 영위하는 집시 집단에서 따온 이름이다. 작곡·아쟁·연회를 전공한 상자루는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되 전통을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

<지신RV>는 쇠와 아쟁, 기타로 연주되는 연주곡으로 역병과 악을 물리치는 지신밟기의 의미를 상자루의 독특한 음악적 해석으로 보여준다.

<경북스윙>은 경북 구미시 무을면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을농악’을 상자루-화<sup>ㄴ</sup>한 곡이다. ‘경상북도스러운 음악적 어법’을 구현해 내기 위해 경상도 농악의 특징적인 연주법들을 상쇠의 지휘에 따라 기타와 아쟁이 구현해 낸다.

# 배김새의 아름다운 춤사위와 낙죽장도 공예의 만남

국가무형문화재 고성오광대 국가무형문화재 장도장



고성오광대의 가장 중요한 사위는 바로 ‘배김새’ 이다.  
귀신을 쫓고 나쁜 액을 물리치고 신명과 희망을 바라는 춤사위이다.  
무대 위에 1인 독무로 시작한 덧배기와 낙죽장도 공예의 과정이 함께 어우러진다.  
고려시대 말부터 조선시대까지 자신의 몸을 지키면서  
동시에 역병과 재앙을 물리치는 의미로 몸에 지니고 다녔던 장도와 칼의 의미를 되살리는  
장도장 공예와, 사악한 기운을 베는 고성오광대 배김새 춤사위의 만남으로  
재앙을 물리치는 아름다운 콜라보레이션을 선사한다.



## 출연진



이윤석

국가무형문화재 고성오광대  
보유자



한상봉

국가무형문화재 장도장(낙죽장도)  
보유자

# 신명과 배김새의 백을 잇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국가무형문화재 고성오광대

출연진 고성오광대보존회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나누지 않고 함께 즐기는 옛 탈춤 판을 재현하고  
옛 문화가 아닌 현재도 흐르는 문화를 보여주고자 한다.  
출연진을 두 무리로 나누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잇고자 한다.  
이는 우리의 춤이요 우리의 악으로 전통예술을 통해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 STAFF

연출 정종임

구성 남인우

공연PD 하윤아

조명디자인 송영건

영상디자인 라지웅

무대감독 박준평

무대기계감독 라경채

음향감독 이재정, 장현석

조명감독 박재섭, 최영웅

하우스매니저 서혜진

## 국립무형유산원 오시는 길



## 대중교통

### 버스

#### 전주터미널(고속·시외버스) 하차시

- 고속버스터미널, 불교회관 및 시외버스터미널에서 1000번 버스 이용
- 190번 버스 이용
- ▶ 남고사입구 하차
- 국민은행금암지점에서 429번, 725번, 752번, 785번 버스 이용
- ▶ 국립무형유산원정류장 하차

#### 기차역 하차시

- 전주역첫마중길 정류장에서 1000번 버سی용
- ▶ 남고사입구 하차
- 택시이용(약 20분 소요)

## 자가용

### 호남고속도로

- 전주IC ↔ 국립무형유산원(35분 소요)

### 경부고속도로

- 동전주IC ↔ 국립무형유산원(20분 소요)

### 주차

- 서편 주차장 50대, 동편 주차장 100대



### 공연문의 및 예약

공연예약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 [www.nihc.go.kr](http://www.nihc.go.kr)

공연문의 063-280-1500,1501

전석 무료 공연 (공연 10일 전부터 예약 가능)



네이버 TV국립무형유산원 채널

<https://tv.naver.com/nihc>